



연금보험의 허와 실, 그리고 적절한 선택 방법



글 | 류상만 한국보험신문 기자

1. 머리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이제 거의 선진국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07 세계 보건통계>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8.5세로 전 세계 194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매년 평균수명이 1.5세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경

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거의 90세에 가까울 것 이라는 보고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축복임이 분명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어쩌면 죽지 않고 경험하는 지옥일지 모른다.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건강, 경제적 여유, 취미, 새로운 일 등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이다.

사회가 발달하여 평균수명이 높아질수록 질병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 길어진 여생을 대비할 노후자금을 준비하는데, 의료비 지출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후생활이 길어질수록 의료비의 지출도 많아진다. 고연령일수록 질병 발생율이 높아지고, 치료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수입원이 없어지고 소비만 늘어나는 노후에 있어 질병 치료 때문에 쓰게 되는 비용은 너무나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노후에 대비하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현명한 투자인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노후를 위한 대책으로써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험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3층보장론이 있다. 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노후에는 은퇴하기 전 소득의 70% 정도는 있어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 은퇴 후 20년 정도의 평균여명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4억원의 노후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3층보장론은 이 세가지 연금의 조화를 통해 각각 은퇴 전 소득의 70%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3층보장론의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는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의 하락과 노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체계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될 것이며, 지금 상태로는 204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2010년부터 본격화 되는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실제 10명

중 9명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자금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연금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개인연금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종신 또는 약정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또한 연금개시 전에는 상해와 사망에 대해서 보장하고 연금이 개시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편리함도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2. 연금보험 상품 어떤 것들이 있나

가. 연금저축보험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기존의 공적연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보완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를 비롯한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고,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한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한도도 월 100만원까지이다. 연금지급은 5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연금형, 종신연금형으로 나눈다.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은 매월, 분기, 6개월, 연단위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한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납입이 유리하고, 연금상품에 부가되는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에 없는 큰 혜택이다. 원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나. 변액연금보험(노후준비형)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여 특별계정의

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되는 보험이다.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인 것이다. 투자수익률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주계약 납입보험료로 최저 보증하며, 사망보험금이 주계약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지급한다.

제1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제한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연 12회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추가납입을 통해서 여유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연금개시시점을 45세~70세가

우 중요하다. 변액보험은 높은 투자기대효과로 고수익 달성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투자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는 상품이다. 단순히 상품이 좋다고 하여 무턱대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가입 시 상품별 펀드구성 및 펀드의 주식편입비율, 펀드종류별 특징 및 펀드구성비율 등과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사례를 볼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계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변액상품의 인기가 매우 높은 반면, 주식시장이 침체되면 계약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향후 주식시장의 전망을 고려하여 변액보험의 가입 시기를 고르는 것이 좋다.



지 고객이 자유롭게 설정하고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 연금의 연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특약의 추가로 활동기 보장 니드도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전액 비과세 혜택이 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과세된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길게는 종신까지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면서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그러므로 좋은 회사와 상품 및 구성펀드 등의 선택은 매

다. 변액유니버설연금보험(자유적립식 투자형)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한 펀드를 주식, 채권 등에 수익을 올리는 변액보험과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유니버설을 결합한 보험상품으로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한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변액보험과 같이 '보험가입금액 + 변동보험금' 이 사망 시에 지급된다. 자유입출금도 가능하고, 추가납입이나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물론 투자의 손익부담은 고객의 몫이다. 국공채형, 안정



성장혼합형 등 1개 이상의 펀드 선택이 가능하며 추후 고객의 성향에 따른 펀드 변경으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선택 시 자산운용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에 있는 각 회사의 공시이율을 비교 분석하고,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연금보험 가입 시 주의점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과 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다. 세제적격 상품은 보험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 불리고, 기타금융권에서는 연금신탁으로 불린다.

불입액의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이자소득세의 22%가 증과세 된다는 점이다.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연간 불입액(300만원 한도)의 2%가 가산세로 추징되고,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연금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이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근로소득자도, 자영업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반드시 장기적인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세제비적격 상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가입 후 10년이 경과되

면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이는 연금 개시 연령에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를 불문하고 비과세다. 즉, 세제적격 상품의 경우와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연금가입 목적이 소득공제에 주로 있다면 세제적격상품에 연 300만원을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 목표라면 노후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제 비적격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4. 연금보험 누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우선 한 가정의 경제를 실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에게 필요하다.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갑작스런 사망에 대비한 유족보장을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필요하고, 소득발생이 끝난 경제 활동기 이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금보험이다. 두 번째로,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긴 여성이 주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통상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7년 정도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연령 차이가 4살 정도라고 보면, 여성은 남편 없이 노후에 11년을 더 살아야 하는 셈이다.

그리고 미혼의 젊은 남성, 여성이다. 젊을 때는 보험료도 싸고 사고나 질병을 보장받다가 노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 대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연금보험이 필수적이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자영업자라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아직 늦지 않았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20살에 인생은 너무 길고 찬란하게 보이지만, 60살에 바라보는 인생은 너무 짧고 초라하게만 보인다는 말을 했다.

인생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30~40대 바쁘게 사회생활하고 자식들을 위해 계속적인 투자를 하다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40대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조금 늦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안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부터 노후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해 보는 것이다.

연금상품에서 수익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40대는 연금투자 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일 것이다.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유럽 국가들도 얼마 전부터 사회복지의 대수술 작업이 시작됐다. 독일의 연금기금은 고갈되었고, 이탈리아는 2030년 납세자 0.7명당 연금수혜자는 1명이 되는 긴박한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광풍은 국가주도의 사회복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퇴직자들은 늘어나 연금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부터 개인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 미래의 변화된 사회를 살기 위해 이런 개인연금이외에 다양한 삶을 배우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현명한 식생활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필요해 보인다. 흔히 은퇴를 하고나면 갑자기 생긴 시간을 활용할 줄 몰라 당황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취미를 하나씩 가져보자. 취미는 어느 날 갑자기 가져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노력해야 한다. ☺